



폴란드 특허청장 및 특별보좌관 등 방

폴란드 특허청장(Alicja Adamczak) 및 특별보좌관(Marcin Gedlek) 등 2명이 지난 5월 7일, 우리회를 방문하였다.

양 기관은 품질 높은 폴란드어판 IP 파노라마 개발 및 폴란드의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교육을 위한 운영 컨설팅 협조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회와 폴란드 간의 협력 관계가 더욱 긴밀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밥 퍼” 무료급식 봉사활동 천안함 희생자 유족돕기 성금 전달

사랑과 나눔의 현장 몸소 체험



우리회 사회봉사단(단장 최종협)은 소외된 이웃과의 ‘사랑 나누기’ 일환으로 지난 5월 26일 다일복지재단(대표 최일도)을 방문,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였다.

우리회 사회봉사단 20여 명은 노숙자와 몸이 불편한 어르신께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식사 후에는 식당 환경정리 등 마무리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현장에서 사랑의 성금을 전달하였다.

또한, 지난 5월 10일에는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해 유가족 돕기 차원에서 임직원 모두가 정성스럽게 모금을 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전달하였다.

2007년 4월에 발족한 ‘KIPA 사회봉사단’은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비전을 품고,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가 만든 이러닝 콘텐츠로 국제 지재권 전문가 양성

특허청 · 한국발명진흥회 · 한국과학기술원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간 IP 파노라마 활용 공동교육과정 양해각서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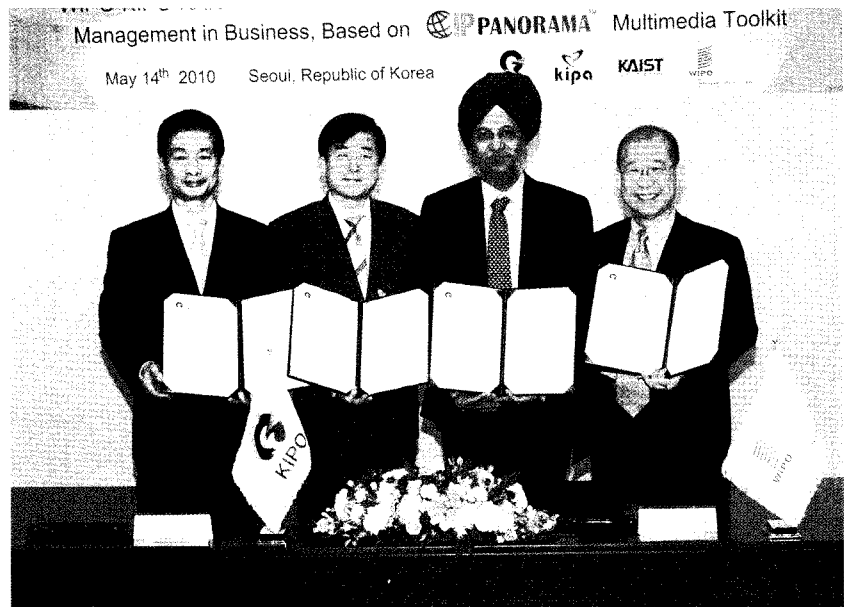
우리회는 지난 5월 14일, 특허청과 세계 지식재산권기구(WIPO), 카이스트(KAIST)와 함께 국제경영전략 교육과정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네 기관은 IP 파노라마를 활용하여 국제 경영측면에서의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및 활용전략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184개의 WIPO 회원국에게 제공하게 된다.

IP 파노라마 (Intellectual Property PANORAMA)는 2005년부터 한국 특허청, WIPO 및 KIPA가 공동으로 개발한 영문 이러닝 콘텐츠로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의 지식재산권 활용전략을 다루고 있다.

이 콘텐츠는 다양한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이야기 형식으로 이루어져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2007년 출시 이후 세계 각국으로부터 자국어판 개발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다.

이에 따라 우리회와 특허청·WIPO는 2009년부터 UN 공용어판 공동개발을 추진 중이며, 현재 아랍어판 개발이 완료되었고 올해 중으로 스페인어판, 프랑스어판이 출시될 예정이다.





2010 대학창의발명대회 Invention to Innovation 워크숍 개최

전국 대학생 280여 명 참석 성황 이뤄...

분야별 특강 및 도전 발명골든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우리회는 지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화성 라비돌 리조트에서 「2010 대학창의발명대회 Invention to Innovation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76개 대학 180팀(발명연구부문 1차 심사를 통과)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워크숍은 참가자에 대한 지재권 인식 함양과 본인의 발명제안서 수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워크숍 첫째 날에는 카네기연구소 송정희본부장의 「프레젠테이션 스킬」, 트리즈코리아 서승희 전문위원의 「내 아이디어 Up-Grade하기(Triz 이론 소개)」 특강이 있었고, 이어 전국대학발명동아리연합회 소개 및 우수 동아리 활동사례 발표가 있었다.

둘째 날에는 내 아이디어 UP-Grade하기 일환으로, 분야별(기계금속·전기전자·화학생명) 특강(김동명 변리사·김현오 변리사·진병욱 변리사의 「지식재산의 보호방법」, 「특허정보조사 방법 및 활용」, 「특허명세서 작성」)이 있었고, 도전과 혁신 따라 하기 일환으로, LB 인베스트먼트 구중희 이사의 「벤처캐피탈 회사가 보는 좋은 발명과 기업」·연세대 백운수 교수의 「도전과 창의, 발명으



로 열어나가는 미래」 특강이 있었다.

이어, 지난 대회에서 수상한 선배들과의 만남의 시간에서는 2007년 전국대학발명경진대회에서 대상(국무총리)을 수상한 박승복 학생(연세대 3)과 SK텔레콤에 입사한 구정화 씨, GS건설에 입사한 김두용 씨가 참석해 발명대회 준비요령 및 동아리 활동, 그리고 대회참가를 통한 취업 성공기를 전했다.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모든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전 발명골든벨"을 진행하였는데, 이날 영광의 골든벨은 최재우 학생(가톨릭대 3)이 올렸다. 2등에는 강유정 학생(국민대 4)이, 그리고 3등에는 강우람 학생(고려대 4)이 차지하여 넷북, 외장하드, 그릴 등 다양한 상품을 각각 전달받았다. 또한 1등이 속한 15조에는 20만원 문화상품권이 지급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의 대학생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루었다.



“대박나는 발명, 대학생이 한다”

2010 대학창의발명대회에 97개 대학에서 대학생들 대거 몰려
서울대, 부산대 등에 대학발명동아리도 47개 새로 만들어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대회에 학생들이 대거 몰렸다. 지난 3월 26일 접수를 시작하여 4월 30일 마감한 2010년 대학창의발명대회 발명연구부문에 97개 대학에서 1,187팀이 신청하였다.

대학창의발명대회의 발명연구부문은 대학생이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한 후 이를 발명품으로 완성하고, 그 결과를 특허출원서 형태로 작성하는 대회이다.

대학별로는 영동대학교(137팀), 인하대(105팀), 숙명여대(88팀) 순으로 신청이 많았고, 기술분야별로는 기계금속분야가 50%, 화학생명 분야 12%, 전기전자분야 38%이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대회 참가를 위하여 새로운 발명동아리가 47개나 새로 만들어져 기존의 46개에 더하여 전국 대학에 93개의 발명동아리가 활동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대회에 참여함에 있어 발명동아리 가입이 필수는 아니지만 발명노하우의 공유라든지 발명활동에 있어 많은 이로운 점이 있어 이를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절차는 아이디어에 대한 심사를 거쳐 180팀을 선발하여 선행특허조사방법, 창업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다음, 다시 60팀을 선발하여 각 팀별로 150만 원의 발명연구비를 지급하여 발명시작품으로 완성하게 할 예정이다.

이후 완성된 발명을 심사하여 연말에 시상식과 전시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이미 완성된 발명품을 제출하는 이 대회의 '발명특허부문'은 8월 12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올 12월 하순에 열릴 예정이며 수상부문은 대상(국무총리상) 1점, 최우수상 6점(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 2점, 지식경제부 장관상 2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상 2점), 우수상 8점(특허청장상), 장려상 12점 등(학회장상) 등 총 27팀을 선발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발명의 수준을 높이고 대학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지도교수(특허청장상)와 단체부문으로 우수발명 동아리(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상)도 시상할 계획이다.

